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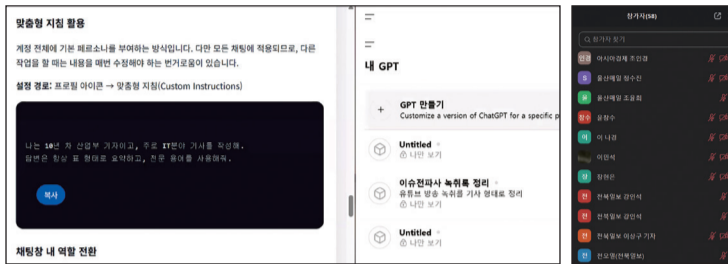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Readers are Leaders

## 개인화 챗봇부터 팟캐스트 자동 생성까지

신문협회, 디지털 저널리즘 연수 실시...사례와 실습을 한 번에

신문협회는 지난 5월 19일과 20일, 28일 '디지털 저널리즘 역량 강화' 실무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회원사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 기반 저널리즘 전략을 위해 마련한 이번 연수에는 14개 회원사 실무자 84명이 참여했다.



지난 5월 19일 '생성형 AI 기반 기사 작성 툴 활용'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 생성형 AI 기반 기사 작성 툴 활용

김주성 한국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부 부장(사진)은 지난 5월 19일 '생성형 AI 기반 기사 작성 툴 활용'을 주제로 생성형 AI의 유의점과 활용법, 효과적인 프롬프트 설계 노하우 등을 소개했다.

김 부장은 "생성형 AI의 '프롬프트 설계'는 '취재 설계'와 같다. 질문의 차이에서 기사의 완성도가 결정된다"며 프롬프트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역할 부여(ex, 'AI야, 너는 글로벌 경제지의 자동차 산업 전문 시니어 기자야'), 구체적 질문, 맥락 제공, 출력 형식 지정(ex, '제목, 리드문, 본문 3~4개, 소제목, 결론으로

구성해줘') 등 좋은 프롬프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생성형 AI 활용의 핵심은 '잘 쓰는 것보다 틀린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라며 "생성형 AI는 속도와 문장력 등은 뛰어나지만 '사실 검증', '맥락 이해', '책임성' 등의 부문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답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할루시네이션(환각)을 줄이는 지침 설정(ex, 답변의 근거가 되는 출처나 인용구를 포함해줘) ▲사후 검증 방법(수치, 날짜, 인물 등 핵심 정보는 별도 검색으로 확인하거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 답변 일관성 확인) ▲학습 초기화와 보안 설정 방법(ex, 모든 대화 기록 삭제

는 설정→데이터 제어→모든 채팅 삭제하기) 등을 제시했다.

### 인포그래픽 및 데이터 시각화

김수진 동아일보 뉴스 디자인팀 팀장(사진)은 지난 5월 20일 '인포그래픽 및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AI 기반 인포그래픽 제작 방식 ▲모바일 중심 뉴스그래픽 전략 등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데이터 저널리즘은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방식(표)으로 ①템플릿 프롬프트 ②스타일 가이드 문서 ③레퍼런스 이미지 ④컴포넌트

### AI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제작 방식

①템플릿 프롬프트	원하는 스타일과 구성을 문장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
②스타일 가이드 문서	디자인 기준을 먼저 정리한 뒤 AI가 그 규칙 안에서 제작하도록 하는 방식
③레퍼런스 이미지	원하는 인포그래픽이나 뉴스 그래픽 이미지를 참고 자료로 넣고 AI에게 비슷한 방향으로 제작하도록 하는 방법
④컴포넌트	제목, 차트, 데이터 카드 등 요소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설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드 문서 ③레퍼런스 이미지 ④컴포넌트 방식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지면 중심 뉴스그래픽에서 모바일 중심 뉴스그래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모바일 친화적인 그래픽을 위한 팁'으로 ▲그래픽을 여러 개로 나눠 제작할 것 ▲중요 정보는 확대할 것 ▲길이를 줄일 것 ▲레이아웃을 단순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 NotebookLM 등 AI 기반 취재·정리 도구 활용

최영준 구글 티칭펠로우(사진)는 지난 5월 28일 '노트북LM 등 AI 기반 취재·정리 도구 활용'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노트북LM은 구글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메모 작성 온라인 도구다. 그는 "노트북LM은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자료만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고, 모든 답변에 출처를 표시해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재보도를 위한 노트북LM의 구체적인 기능으로 ▲방대한 자료의 핵심 정리 및 시각화 자료(인포그래픽·슬라이드 등) 제작 ▲유튜브 동영상·음성자료·녹취록 등 요약 정리 ▲텍스트 자료를 기반으로 오디오·비디오 콘텐츠 생성 등을 소개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기사와 관련한 취재자료를 업로드한 뒤 두 명의 전문가가 대답하는 형식의 팟캐스트 대본을 만들거나, AI 호스트가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브리핑 영상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뉴스 미디어의 미래 전략을 논하다

77차 세계신문협회 총회 1일 개막

제77차 세계신문협회(WAN-IFRA) 연차총회가 1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막했다. 이번 총회는 '떠오르는 목소리, 새로운 위험, 영감을 주는 미래(Rising Voices, Emerging Risks, Inspiring Futures)'를 주제로, 전 세계 1,100여명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모여, 뉴스 미디어의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



올해 연차총회는 △뉴스룸 AI 전략 △미디어기업의 수익 증대 방안 △저널리즘의 미래 등 20개

이상의 세션을 비롯해, 워크숍과 대담, 전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2박 3일간 진행된다. 주요 연사로는 AG 솔츠버그 뉴욕타임스 회장 겸 발행인, 알파 라투르 다우존스 CEO, 캐서린 바이너 가디언 편집장 등 주요 언론사 경영진들과 레드, 오픈AI 등 IT기업의 임원들이 참여한다.

### 신문협회 제69회 창립기념 발행인 세미나

6월 11~12일 목포에서 개최

신문협회는 오는 6월 11~12일(목~금) 호철현대 바이 라한 목포(구 현대호텔)에서 창립기념 발행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신문의 미래 전략(가치)'을 주제로 강수진 성균관대 영상학과 겸임교수(더 프롬프트 컴퍼니 대표)가 발제를 맡는다.



## 신문협회 10개 회원사, 뉴스 콘텐츠 디지털화 추진

언론재단 디지털화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

언론진흥재단이 올해 실시하는 '뉴스 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사업에 10개 회원사가 선정됐다. 뉴스 콘텐츠 디지털화는 과거신문 기사를 PDF 등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사업이다. 언론재단은 지난 5월 15일 디지털화 지원 사업 언론사 14개사를 발표했으며,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부산일보, 서울신문, 전북일보, 중부일보, 코리아타임스, 한국일보 등 협회 회원사 10개사가 포함됐다. 선정 언론사는 12월까지 과거

기사의 △지면 스캔, 이미지보정 및 PDF 변환 △메타데이터(작성 날짜, 파일 크기 등 정보)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 구축 등을 지원받는다.

###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사업 선정사

일간지	전국	서울신문,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
	지역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동양일보, 무등일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중부일보
주간지, 잡지		법률신문, 신동아

※신문협회 회원사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가 후기

#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



이미영

성사중학교 진로상담부장

진로교사로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이론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한계를 자주 느끼게 된다. 학생들에게 실제 직업인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던 중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 모집 안내를 접하게 됐고,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아일보 변종국 기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기자과 신문』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기자가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취재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때로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이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실제 심층 취재 사례를 소개하며 기자가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쓴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지난 5월 7일 올해 첫 신문기자 진로탐색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아일보 편집국 산업1부 변종국 기자와 서울 마포구 성사중학교 학생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기자가 직접 가져온 신문을 함께 살펴보고 제목, 사진, 기사문, 사실, 광고 등 신문의 구성 요소를 배우는 시간에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특히 높았다. 학생들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신문 한 면에도 수많은 사람의 고민과 노력, 편집 과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

다. 같은 날짜의 신문이라도 지역에 따라 인쇄판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은 신문 한 부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과정과 고민이 필요한지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활동은 '독서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기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료를 읽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독서가 모든 배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기자가 생각보다 많은 준비와 책임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았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

다", "기사의 제목은 글을 쓴 기자와 별도로 제목을 짓는 기자가 있다는 사실도 인상 깊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강연이 끝난 뒤 학생들이 기자에게 물려가 질문하고 사인을 요청하던 장면이었다. 기자 역시 "사인을 해본 적이 없다"며 쑥스러워했지만 학생들과 웃으며 소통하는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학생들에게는 현직 기자라는 직업인이 단순한 강연자가 아니라 실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까운 어른으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학교 안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학교 밖 세상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신 변종국 기자님과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기업은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 관리 체계 갖춰야”

경영지원협, '2026년 정부 주요 노동 정책 변화' 실무자 세미나

신문협회 산하 경영지원협의회(회장 장철환 서울경제 이사)는 지난 5월 21~22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2026년, 정부 주요 노동 정책'을 주제로 실무자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장진나 노무법인 현울 대표노무사는 “최근 정부와 법원이 포괄임금제를 점차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표)이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장



지난 5월 21~22일 열린 경영지원협의회 실무자 세미나에서 장진나 노무법인 현울 대표노무사가 '2026년 정부 주요 노동 정책 변화'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노무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칙적으로 임금급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장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공짜 야근’ 근절을 목표로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반드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급도 종류에 따라 임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서

### 포괄임금제 관련 입법 추진 내용

구분	내용
임금대장 기재사항 강화	-사용자의 '근로시간관리' 의무 법제화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기존 기재사항 외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를 포함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별 그 시간 수'를 기재
근로자의 열람·사본 교부·정정 요구권 신설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해 열람·사본 교부 또는 정정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정당하지 않음이 입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신설
가산임금의 포괄적 산정 금지 원칙과 예외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시간 수에 따라 산정 -단,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시간 수를 미리 정해 정액 지급(고정 OT)하는 약정은 허용
정액 약정 시에도 차액 발생시 추가 지급	-예외적으로 정액 지급 약정(고정 OT)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임금보다 적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

EVA(경제적부가가치) 기반 '성과 인센티브'는 경영성과 배분 성격이 강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

면, '목표 달성형 인센티브'는 근로 성과와 밀접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마케팅협, 신문 유통환경 개선 실무자 TF

마케팅협의회(회장 오병철 문화일보 독자마케팅국장)는 지난 5월 14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신문시장 활성화 및 유통환경 개선 방안 수립

을 위한 실무자 TF(사진)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자 TF는 재경회원사 마케팅 부문 실무자 16명이 참여하며, 2개월간 운영된다. 이날 TF는 올해

추진 과제로 신문 배달이 어려운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회원사 공동 협력 방안과 지역별 지국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원하는 만큼 지불’...유연한 가격 정책으로 구독자 4.2% 증가

## 加 6개 지역언론, 공익적 메시지 내세워 독자 지불 의사 자극

국제뉴스미디어연합(INMA)은 지난 4월 27일 캐나다 6개 지역 언론의 협동조합인 ‘레 코옵 드 랭포르마시옹(정보협동조합)’의 구독 혁신 전략을 소개했다. 혁신 전략의 핵심은 ‘자율 지불(Pay what you can)’ 프로젝트로, ‘콘텐츠 접근 제한’과 ‘유연한 가격 정책’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 새로운 기능과 콘텐츠 접근 제한

정보협동조합은 독자 참여를 높이고 구독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그인 기반의 새로운 기능들을 대거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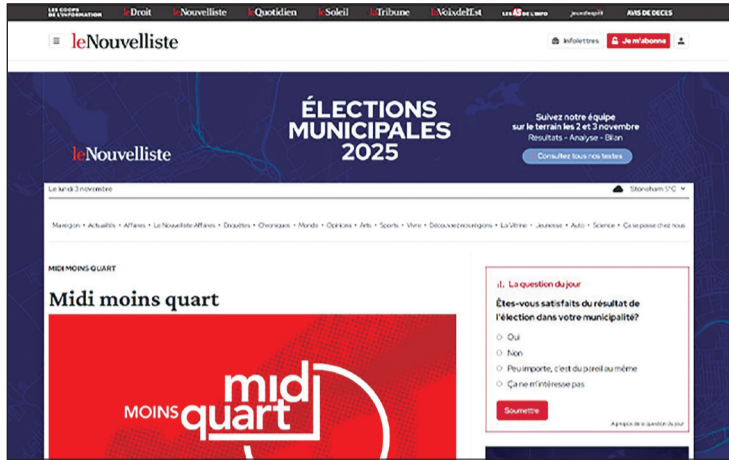
그 중 하나는 설문 조사이다. 언론사는 매일 지역 뉴스 관련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항목(사진)을 제시하고, 로그인한 독자들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용자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유도해 독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료 구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설문에는 현재 매일 9,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로그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크로스 디바이스 북마크(cross-device bookmarking)’와 ‘계속 읽기(keep reading)’ 서비스이다. ‘크로스 디바이스 북마크’는 사용자가 여러 기기에서 동일한 북마크(저장한 기사·콘텐츠)를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며, ‘계속 읽기’는 다른 기기에서 기사를 이어서 읽을 수 있는 기능이다. ‘기사 음성 읽기’ 기능 역시 구독자만 이용할 수 있는 독자 전용 서비스다.

정보협동조합은 독자 확보 전략으로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언론사들은 칼럼과 사설 등 핵심 오피니언 기사는 물론, 게시 후 30일이 지난 모든 콘텐츠를 유료 전용으로 전환했으며, 계정당 활성 기기 수를 4개로 제한해 무분별한 계정 공유도 방지했다.

지방 선거기간 동안에는 더 많은 사람이 구독 서비스의 가치를 경험하고 고품질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5주간 ‘원하는 만큼 지불하세요’라는 역발상 캠페인도



지역 뉴스 관련 질문을 제공하는 일일 설문조사

추진했다.

캠페인 과정에서는 ▲뉴스레터 ▲리타겟팅 광고(웹사이트나 앱에 방문했거나, 특정 상품에 관심을 보였던 사용자에게 다시 광고를 노출해 재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 ▲구독 안내 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신을 닮은 미디어, 당신을 하나로 모으는 미디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직원 소유 협동조합’이라

는 정체성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이번 캠페인이 단순한 가격 할인인 아닌 지역 저널리즘을 수호하는 공익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독자들로부터 뉴스 소비를 넘어 지역 미디어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와 지지를 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 사용자들은 생각보다 더 큰 가치 부여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도전적인 과제였던 유연한 가격 정책은

언론사가 예상한 것보다 독자들이 저널리즘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언론사들이 캠페인 초기 3개월간 구독료로 최소 월 1달러(한화 약 1,400원)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들의 초기 월평균 지불 금액은 3.12달러(한화 약 4,500원)를 기록했다.

이후 언론사가 구독 금액을 5달러(한화 약 7,000원)로 높여 제시하자, 독자들은 평균 3.39달러(한화 약 4,900원)를 지불했으며, 6달러(한화 약 8,700원)를 제안했을 때는 지불금액이 평균 3.50달러(한화 약 5,000원)로 증가했다.

이러한 유연한 지불정책 프로젝트는 전체 구독자 수를 4.2% 증가시키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더욱이 신규 구독자의 84%가 이전까지 단 한번도 구독해본 경험이 없는 독자라는 점에서, 유연한 가격 정책이 비구독층을 잠재적 유료 독자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CNN,페이월 도입 18개월 만에 목표 구독자 수 초과 달성

## 케이블 TV 시장 감소 대응해 유료 모델 도입 강력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독자의 직접 유입 유도

미국 미디어 분석 매체 미디어오퍼레이터(AMO)는 지난 4월 27일 CNN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목표 구독자 수를 초과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구체적인 구독자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초 CNN은 온라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디어기업에 비해 늦은 2024년 10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만다 로티어(Amanda Rottier) CNN 성장 부문 총괄 수석부사장은 CNN이 오랫동안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CNN은 그간 TV 채널에 더 중점을 뒀으며 소비자 직접 판매(D2C)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

만 케이블 TV 시청률이 감소함에 따라 CNN은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24년 유료 전환을 단행했다.

### 페이월 운영 방식

CNN은 2024년 10월 첫 페이월(무료 이용자에게 접근을 제한하는 유료화 장벽 시스템)을 도입하며 ‘CNN 베이식’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는 기사만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요금은 월 3.99달러(연 29.99달러, 한화 약 4만 3천 원)이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 페이월(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개별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유료화 장벽)’을 통해 독자의 유료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에 유료 구독 페이지를 노출한다.

1년 뒤 CNN은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상위 등급인 ‘올 액세스’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섰다.

‘올 액세스’는 월 6.99달러(연 69.99달러, 한화 약 10만 2천 원)로, 전용 오리지널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4개 채널(메인, 국제, 속보, 다큐)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한다.

로티어 수석부사장은 “현재 대형 속보 시마다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영상 콘텐츠가 구독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사 전용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구독자들이 가장 원했던 기능은 모든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CNN은 지난 3월 기록적인 영상 시청 조회수를 달성했으며, 그 결과 디지털 독자수 역시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CNN은 이용자들이 유료 콘텐츠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예고편 기능’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CNN은 유료 구독 비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액세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CNN은 향후 새로운 포맷과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라이프스타일 등 보도 영역의 확장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넓히고 참여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날씨 다음은 웰니스(wellness)

CNN은 보도 영역 확장을 위해 최근 ‘CNN 날씨(CNN Weather)’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앱은 지역 날씨예보와 기상 재난 실시간 보도, 기후 관련 심층 기사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베타(beta, 정식 출시 전 단계에서 실제 사용자들에게 시험 운영되는 상태) 버전으로 운영 중이나, 로티어 수석부사장은 조만간 미국 전역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날씨 앱은 현재 단계에서는 유료 모델을 지향하지 않는다. CNN이 날씨를 독립 제품으로 확장한 이유는 수익화보다는 CNN이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을 발굴하고 사용자 니즈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건강과 웰니스(‘건강’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신체·정신·생활 전반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의미) 역시 CNN이 새롭게 진출을 검토 중인 영역이다.

CNN은 앞으로 번들(콘텐츠 묶음) 상품을 통해 수익과 구독 유지를 높일 계획이다. 다만, 현재는 다양한 가격 실험(1달러 제안, 권장 가격 등)을 통해 독자의 구독 의향을 확인하는 단계로, 성급하게 번들 상품을 출시하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겨레 저널리즘’ 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 삼을 것”

한겨레 창간 38주년 기념식

한겨레(발행인 박찬수)는 지난 5월 14일 본사 청암홀에서 창간 3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박찬수 발행인은 “허위와 과장·왜곡 보도가 넘쳐나는 지금 무엇이 진실인지가 드러내어 국민에게 전달하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신문을 넘어 영상과 디지털, 새로운 플랫폼에서 다시 시민과 연결되겠다”며 “‘한겨레 저널리즘’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밀착형 콘텐츠로 독자 삶에 더 깊이 다가갈 것”

경상일보 창간 37주년 기념식

경상일보(발행인 엄주호)는 지난 5월 14일 본사에서 창간 3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엄주호 발행인은 “미디어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독자들의 요구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

하게 대응해 혁신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지역 밀착형 콘텐츠로 독자의 삶에 더 깊이 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적극적인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회원사 동정

강원도민일보, ‘2026 원주 단구공원 둘레길 맨발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강원도민일보(발행인 김종석)는 오는 10일까지 ‘2026 원주 단구공원 둘레길 맨발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500명이다. 코스는 단구공원 둘레길 3.5km로 약 1시간 30분 소요된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신청은 한국걷기협회 홈페이지(kwta.kr)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는 원주시 걷기여행길 안내센터 033-762-2080.

경인일보, ‘미래사회포럼 14기 원우’ 모집

경인일보(발행인 홍정표)는 오는 5일까지 ‘미래사회포럼’ 14기 원우를 60명 내외로 모집한다. 대상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회 관계자와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 있는 오피니언 리더이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19시~21시 경인일보 3층 회의실에서 총 1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미래사회포럼 사무국 031-231-5272.

매일경제, ‘글로벌 K뷰티 콘퍼런스 2026’

매일경제(발행인 장승준)는 오는 16일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글로벌 K뷰티 콘퍼런스 2026’을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주요 기업과 전문가가 △글로벌 유통 △이커머스 △제조 혁신 △메디컬 뷰티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globalkbeauty.co.kr)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9만 9천 원이다. 문의는 02-6349-9448.

아시아경제, ‘AI 기반 중문 페이지 오픈’

아시아경제(발행인 장범식)는 지난 5월 12일 AI 기반의 중문 페이지(www.asiae.co.kr/cn)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반 실시간 번역 시스템을 통해 국문 페이지의 주요 콘텐츠를 중문으로 제공한다. 국문 페이지와 동일한 인터페이스(UI)를 기반으로, 국/영/중문 페이지에 있는 ‘언어 변환’ 버튼을 통해 페이지 전환이 가능하다.

경남신문, ‘제30회 경남중소기업 대상 공모’

경남신문(발행인 이종봉)은 오는 19일까지 ‘제30회 경남중소기업대상’을 공모한다. 공모 부문은 △기술혁신 △창업벤처 △경영혁신 △수출기업 △여성기업 등 총 7개 부문이다. 접수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gh251218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nnews.co.kr) 참조.

대한경제, ‘2026 대한경제 건설자재 세미나’

대한경제(발행인 유일동)는 오는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6 대한경제 건설자재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장수명 주택을 위한 콘크리트 품질 향상 방안’이다.

이번 세미나는 장수명 주택(Long Life Housing)의 필요성과 현행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콘크리트 품질 향상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문의는 대한경제 건설기술부 02-3485-8490.

부산일보, ‘제38기 세계시민대학 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부산일보(발행인 손영신)는 오는 10일까지 ‘제38기 세계시민대학 공개강좌’ 수강생을 선착순 70명 모집한다. 강좌는 매주 수요일 14시~16시 영광동서 9층 문화홀에서 총 8주간 진행된다. 강의주제는 △AI 시대, 내 돈은 어떻게 지킬까! △부산의 독립운동사 △음악으로 읽는 세상 △개항 150년, 부산의 미래 등이다. 문의는 부산발전시민재단 사무처 051-809-2629.

조선일보, ‘2026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대상’ 공모

조선일보(발행인 홍준호)는 오는 5일까지 ‘2026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대상’ 기업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소비자 만족을 위해 품질을 개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다. 심사 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 인지도 △구매 실적·선호도·만족도에 대한 소비자 직접 평가 △제품 및 서비스 성과 △고객 중시 성과이다. 접수는 디지털조선일보 방송본부 뉴미디어전략부 02-365-4613.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 기사 112건, 광고 49건 주의 결정

신문윤리위 5월 심의 결과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5월 13일 제1,008차 회의를 열고 신문협회 회원사의 기사 112건과 광고 49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등 위반으로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표).

5월 기사 및 광고 심의 현황

		구분		건수
일간신문 및 통신	기사	기타	1	
		주의	112	
	광고	경고	0	
		주의	49	
온라인 신문	기사	경고	0	
		주의	220	
	광고	경고	0	
		주의	107	

신문협회보

발행인 박장희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다

알고리즘이 대세로 변한 지금에도 세상을 읽어내는 신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걸러낸 세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만나는 방법, 바로 신문입니다.

